

#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78호 2019년 2월 20일

항만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△Tel.+82-51-797-4665 Fax.+82-51-797-4659 △총괄: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△감수:길광수 명예연구위원 △편집:김엄지 연구원

## 주요내용

### 통계로 보는 북방(p.2)

- 선도개발구역·자유항, 투자 규모·일자리 증가에도 인구 감소 추세

### 이슈페이퍼(p.5)

-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, 당사국간 협약 통해 해결 긴요

### 주요 동향(p.10)

#### • 동부(p.10)

- 올 3월 극동러~중국 잇는 철교 완공 예정
- 하바롭스크주 니콜라옴스크 선도개발구역 확대
- Russian Copper Company, 러시아 최대 구리 매장지 개발
- <프리모리예-2> 인프라 구축, 금 말까지 완공 계획

#### • 중부(p.19)

- 카자흐스탄 국민, 실질소득 4.4% 증가세 보여

### 주요통계(p.21)

-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 (2019년 1~2월 4일)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서부권역 : 러시아 서부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 등 / 중부권역 : 중앙아시아, 몽골 / 동부권역 : 러시아 극동, 시베리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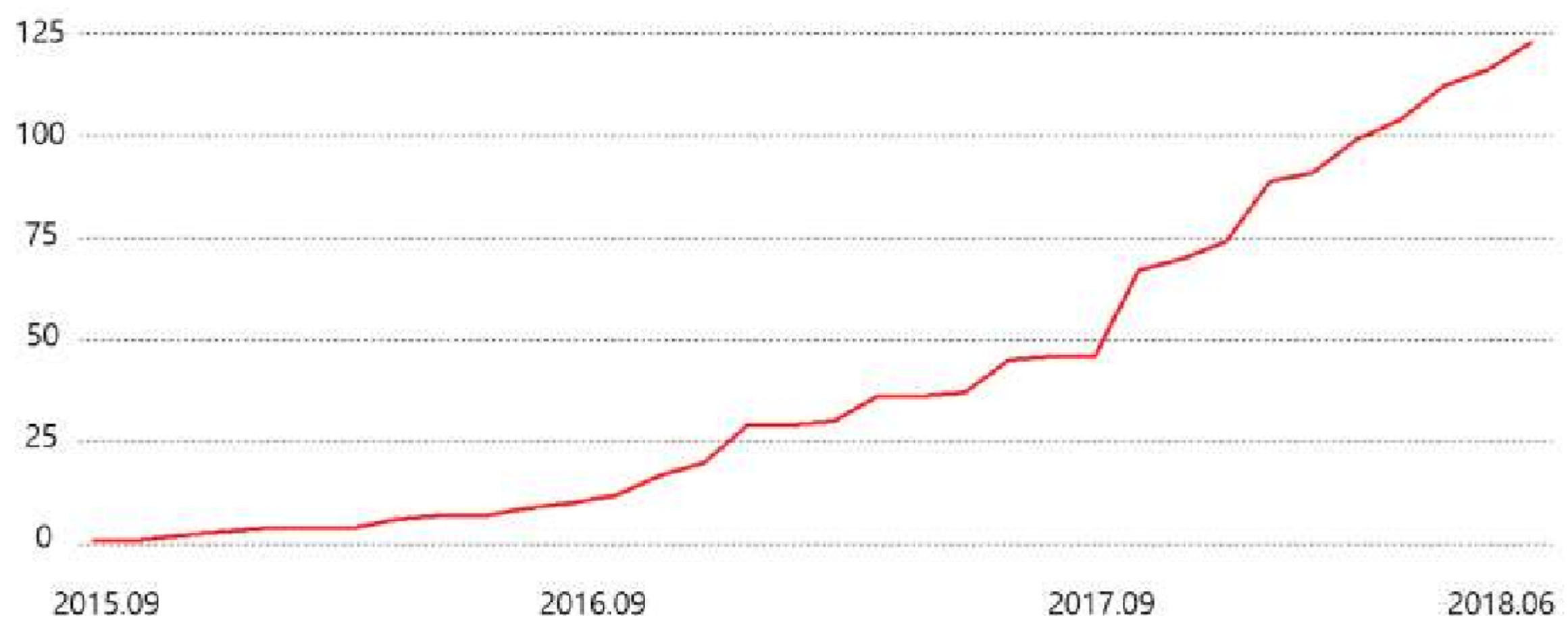
## 통계로 보는 북방

### ■ 선도개발구역·자유항, 투자 규모·일자리 증가에도 인구 감소 추세

- 2015년 9월부터 극동지역 내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지역 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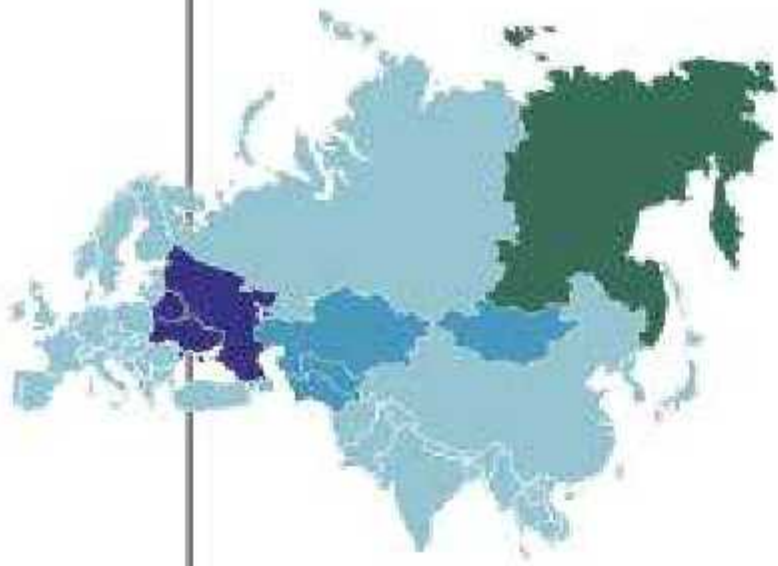
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구역 내 진행 중인 프로젝트(2015.09~2018.06)

(단위: 개)



자료: <https://www.eastrussia.ru/material/pervo-sdannaya-sotnya/> (검색일: 2019년 2월 19일)

- 선도개발구역 중 입주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캄차트카로 총 77개 기업이 입주했음
  -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44개, 추코트카는 39개, 하바롭스크는 31개, 콤소몰스크는 25개로 각각 2위부터 5위까지 차지함
- 선도개발구역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지역 1위는 스바보드니로 총 9,480억 루블임
  - 2위는 네프테히미체스키로 총 6,600억루블의 투자규모를 기록했으며, 3위부터 5위까지는 각각 볼쇼이 카멘(2,130억루블), 프리아무르스카야(1,240억루블), 미하



일롭스키(630억루블)이 차지함

- 그 밖에도 선도개발구역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은 볼쇼이 카멘 지역으로 총 13,46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음
  - 그 외 유즈나야 아쿠치야는 7,121개, 캄차트카는 5,516개, 나제진스카야는 4,416개, 네프테히미체스키는 4,420개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됨

###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 현황(2019.02. 기준)



자료: <https://www.eastrussia.ru/material/dalniy-vostok-vedut-k-pribylnosti/> (검색일: 2019년 2월 19일)

- 다만 투자규모, 일자리 등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 인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
- 또한 14일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극동지역의 전반적인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그쳐, 양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기업인 간 상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www.eastrussia.ru/material/dalniy-vostok-vedut-k-pribylnosti/> (검색일: 2019년 2월 19일)

<https://www.eastrussia.ru/material/pervo-sdannaya-sotnya/>  
(검색일: 2019년 2월 19일)

<http://deita.ru/ru/news/sotni-milliardov-idut-v-tory-no-statistika-udruchaet/>(검색일: 2019년 2월 19일)

김엄지 연구원

051-797-4776, umjikim@kmi.re.kr



## 이슈페이퍼

### ■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, 당사국간 협약 통해 해결 긴요

- 2018년 8월 12일 카자흐스탄 악타우(Aktau)에서 카스피 해 연안 5개국(러시아, 카자흐스탄, 아제르바이잔, 투르크메니스탄, 이란) 정상들이 만나 회담했음
  - 본 회담은 소련 해체 이후 20여년 넘게 지속된 연안국들의 이해관계 충돌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
  - 5개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급·장관급 회담이 아슈하바트(투르크메니스탄, 2002), 테헤란(이란, 2007), 바쿠(아제르바이잔, 2010), 아스트라한(러시아, 2014)에서 개최된 바 있었으나,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
  - 이는 카스피 해를 UN 해양법에 근거해 바다로 간주할 것인지 혹은 국제적인 호수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국들의 손익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음
  - 한편 새로운 영유권 조약은 투르크메니스탄이 2018년 12월 1일 당사국들 중 최초로 의회 비준 동의를 거쳤으며, 이후 2019년 2월 7일 카자흐스탄이, 2월 13일에는 아제르바이잔이 비준함
- 이에 따라 각국의 영해 설정에 있어서 UN 해양법의 완전 적용 대신 호수의 특성을 반영한 절충안이 제시되었음
  - 즉 카스피 해는 “바다도 호수도 아닌 연안국 영토에 둘러싸인 내륙 수역으로서 정의되었음
  - 하지만 당사국들의 어업권, 자원개발권 등을 고려해 UN 해양법에서 규정하는 15마일의 영해 개념 및 배타적 경제수역(EEZ)에 준하는 10마일의 어업수역이 설정되었음
  - 수역 내에서의 해상통행, 어업, 학술연구, 광케이블 및 석유가스관 매설 원칙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되었고, 유전 및 가스전 지대 영유권은 국제법에 의거해 해당 당사국들의 합의를 통해 설정하기로 합의되었음
  - 또한 수역 내의 연안국이 아닌 국가의 해군 주둔 및 항행이 금지되었고, 지역안



보,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되었음

- 이는 미국의 카스피 해 진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이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

■ 한편 90년대 말 ~ 2000년대 초 냉전 시기 카스피 해 경계선 문제는 소비에트 연방과 이란 2개국 간의 문제였지만,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3개의 주권국가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그 양상이 복잡해졌음

- 바다로 간주한 국가(러시아, 아제르바이잔, 카자흐스탄) 중 하나인 러시아는 UN해양법을 비준하며 카스피 해를 바다로 보고 있음을 확인했고, 자국 영토를 통과하지 않는 송유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

- 때문에 1998년 이래 카자흐 측과 함께 해역 공동개발에 합의했고, 아제르바이잔도 2003년 이에 합류하기로 했음

- 카스피 해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온전히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3국은 UN해양법 제15조 “양국 간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국의 각각의 영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한 중간선 밖으로 영해를 확장할 수 없다”에 따라 중간선(median line) 설정에 합의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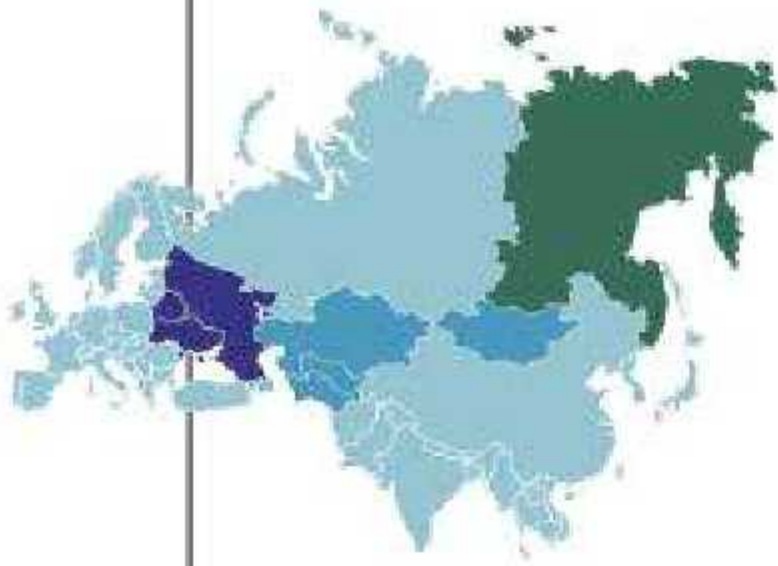
- 반면 호수로 간주한 국가(이란, 투르크메니스탄)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은 해양법을 적용할 경우 가스전 영유권 상실이 예상되었던 바, 5개국이 동등하게 10-20해리 영해로 20%씩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

- 이란은 해양법을 따를 경우 카스피 해 수역의 14%밖에 차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르크멘 측의 입장을 지지하며 카스피 해를 호수로 간주하고, 해양법 및 3국의 중간선 설정에 대해 반발함

- 특히 당사국들 중 아제르바이잔 대 투르크메니스탄, 이란 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이 첨예했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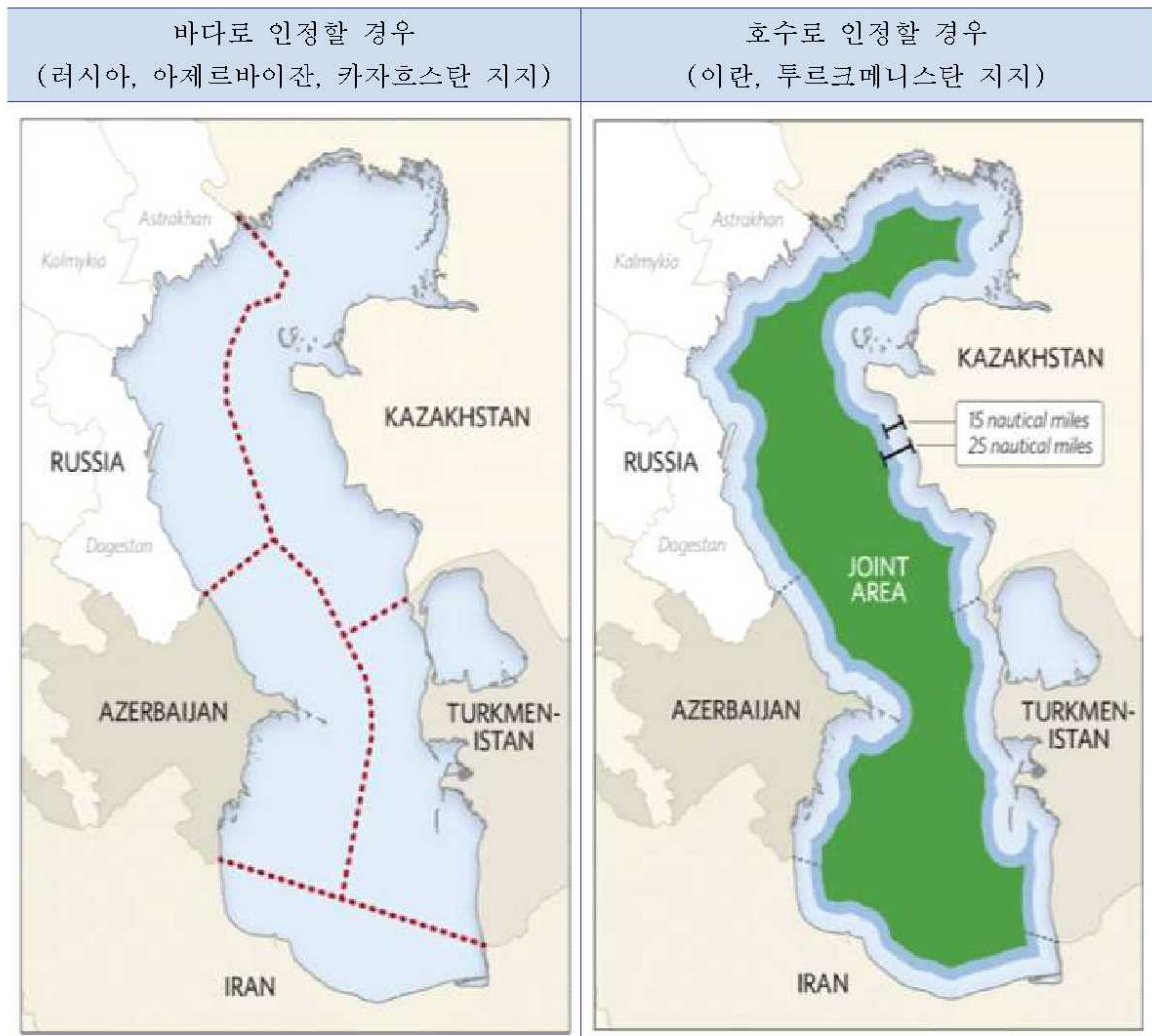
-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중간선 상에 위치한 유전지대의 영유권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, 이란 또한 아제르바이잔 측과의 유전지대 영유권 분쟁이 있었으며, 2001년에는 이란 공군 소속 전투기가 아제르바이잔 석유시추선에 위협 행을 가한 적이 있었음

■ 또한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이전에 카스피 해 수역을 정의하는 문제 또한 애매한 부분이 존재해 왔음



- 바다로 간주할 경우의 문제: 내륙으로 둘러싸인 해양 수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바다 또는 대양과 연결되는 출구가 존재할 경우에는 바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. 하지만 다른 바다와 통하는 볼가(Volga) 강과 돈(Don) 강은 민물이기 때문에 바다의 일부로 인정받기 어려움
- 호수로 간주할 경우의 문제: 국제법상 법리적으로도 국제 호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음. 때문에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국들 간에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며, 이는 갈등의 소지가 있음

### 카스피 해 영유권 획정 구역 형태



자료: The Heritage Foundation, 2016

- 2000년대 이후 간헐적인 분쟁 이외에는 연안국들의 현상유지가 지속되어 왔음



- 한편 카스피 해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미국의 주요 물자 루트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, 러시아와 이란은 서방권의 자원 및 군사적인 이익 침해에 대해 경계해 왔음
- 때문에 카스피 해는 지하자원 및 군사전략적인 차원에서 주목받았음
- 러시아와 이란은 경계선 획정에 관한 합의 이전인 2015년에 이미 카스피 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전개한 바 있으며, 2019년 1월 6일 호세인 한자디(Hossein Khanzadi) 이란 해군사령관은 2019년 내 카스피 해 수역에서 러시아 해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
- 카스피 해의 군사적인 측면 부각은 러시아의 항만물류에서 카스피 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.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항만물동량 비중의 대부분은 발트 해와 흑해, 극동이 삼분하고 있기 때문임
- 그럼에도 2018년 카스피 해의 물동량은 전년도와 비교해 근소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세부적으로 환적량 및 액체화물 운송량은 감소했음

#### 2018년 러시아 카스피 해 물동량 변동 내용

(단위: 백만톤)

| 전체 물동량<br>(전년 대비) | 환적량            | 액체화물 운송량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440<br>(+26.2%)   | 240<br>(-3.9%) | -200<br>(-50%) |

자료: PortNews.ru 2018

- 카스피 해의 영유권 문제는 연안 5개국 협력의 장으로서 한 단계 진일보 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각국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당사국들 간 협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임. 아울러 해역의 강대국인 러시아와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스피 해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임

■ 참고자료 : <http://portnews.ru> 2018 (검색일: 2019년 2월 15일)

유엔해양법협약(UNCLOS) (검색일: 2019년 2월 15일)

<http://24.kz>, 2018 (검색일: 2019년 2월 17일)

RIA Novosti, 2019(검색일: 2019년 2월 18일)

The Heritage Foundation, 2016(검색일: 2019년 2월 18일)

**조용성** 현지 리포터(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)

+7 981-15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



## 동부권역 주요동향

### ■ 올 3월 극동러~중국 잇는 철교 완공 예정

- 올 3월 러시아 아무르 강(Amur River)에 극동러시아 지역과 중국의 동북단 헤이룽장(Heilongjiang)성을 연결하기 위한 양국 최초의 철교가 완공될 예정이다
- 러시아 니즈네레넨스크예(Nizhneleninskoe)~중국 퉁장(Tongjiang) 구간 철교의 총 길이는 2천9백 미터임
  - 동 철교를 통해 러시아의 광석, 석탄, 광물 비료, 목재 등이 중국으로 수출될 계획임

#### 극동러시아 지역과 중국 간 철교 건설 현황



자료: skmost.ru

- 동 철교 건설은 양국 간 28년의 긴 협상 끝에 '1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
  - 총 건설 비용은 3억 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  - 총 길이는 20km이며 이 중 약 6.5km가 중국, 나머지 13.5km는 러시아에 위치함

- 동 철교를 통한 물동량은 '20년까지 3백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
  - 철교를 통한 새로운 경로는 기존 경로보다 약 3천5백km를 단축시켜 양국 간 무역을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됨

■ 참고자료 : [www.rt.com](http://www.rt.com), (검색일: 2019년 2월 8일)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[bjkim17@kmi.re.kr](mailto:bjkim17@kmi.re.kr)

## ■ 하바롭스크주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 확대

-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제안으로 하바롭스크주에 위치한 니콜라옙스크(Nikolaevsk) 선도개발구역의 면적이 확대됨
  - 러시아의 E-비자(간이 전자 비자)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, 2018년 1월부터 그 대상 지역이 사할린 주, 캄차카 지역 등으로 확대되고, 9월부터는 하바롭스크 지역, 아무르 주, चु치 자치구도 포함되었음
  -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선박 건조 및 수리 공장의 리모델링 및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에 추가로 구역을 이전하는 결정에 서명했음. 동 투자 프로젝트 완료 시 최소 70개의 일자리 및 약 3억 루블로 추산되는 투자 자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-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은 잠재적 입주 기업으로 알려진 유한책임회사<sup>1)</sup> 오호츠크 선박수리공장의 입주 신청으로 하바롭스크주의 오호츠크군 소재 5개 구역이 편입되었음
  - 오호츠크 선박수리공장 회사는 2022년까지 선박 건조 및 수리 공장의 리모델링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
-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 국내투자, 생산 현대화,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활동을 희망하는 외국투자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힘
  - 또한 그는 “우리의 목표는 러시아 극동 내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으로, 이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이미 채택했으며 선도개발구역은 그중에 하나”라고 덧붙임
-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은 2017년에 조성되었으며 이 구역의 주요 산업은 선박 수리, 수산가공업, 광업 등 분야임
  - 기존 입주 기업 수는 6개이며 28억루블로 추산되는 투자로 약 5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
  - 현재는 하바롭스크주에 있는 선도개발구역은 3개이며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,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 및 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은 각각 2015년 6

1) 러시아 법률상 법인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① 합자회사 ② 합명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로 분류됨. 유한책임회사란 러시아 명칭으로 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(ООО) (유한책임회사)라고 함



월, 2015년 6월, 2017년4월에 지정되었음

하바롭스크주 선도개발구역 현황



니콜라옙스크 선도개발구역 현황



자료: 하바롭스크주 정부 공식 웹사이트 (검색일: 2019년2월12일)

참고자료 : 하바롭스크주 정부 공식 웹사이트 (검색일: 2019년2월12일)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



## ■ Russian Copper Company, 러시아 최대 구리 매장지 개발

- Russian Copper Company(AO «PMK»)는 극동 투자 및 수출 기관<sup>2)</sup>과 하바롭스크 나나이 지역에 위치한 말트쾨스크 광물 매장지(말트쾨스크 금-구리-반암 매장지<sup>3)</sup>)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음
  - 본 협약은 2019년 2월 14일 러시아 투자 포럼 '소치-2019'에서 체결됐음
  - 본 매장지는 2006년에 발견되었으며 추정 매장량은 구리 약 516만톤, 금 약 278톤이며 광석에서 평균 구리함량은 약 0.41%, 금 약 0.22g/t임
  - Russian Copper Company는 연간 최대 약 3,500만 톤의 광물을 처리 및 가공할 계획임
  - 본 프로젝트는 약 1,150억 루블이 투자되며 약 1,400개의 새로운 전문 일자리가 창출됨
  - 현재 광산에서 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채굴 및 가공 시설 건설은 설계 작업 및 프로젝트 조정을 위한 통과절차를 마친 후 2021년에 시작될 계획임
- 극동 투자 및 수출 기관의 게오르기 콜파체프 투자유치 부국장에 따르면 말트쾨스크 광물 매장지 개발은 업계 및 하바롭스크 지역의 사회·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함
  - 이미 프로젝트 1단계에서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계속되는 프로젝트 실행에 따라 최대 약 1,500개까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봄
  - 이에 따라 본 기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우선과제 중 하나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제공하고자 함
  - 하세르게이 푸르갈 하바롭스크 주지사 또한 본 광물 매장지가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구리 매장지라 하며 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함
- 브세보로드 레빈 Russian Copper Company 대표는 자사의 개발이 주로 우랄 및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있으며 말트쾨스크 광물 매장지 개발은 극동지역에서의 첫 번째 프로젝트라고 강조함

2) АНО АПИ: Агентств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и поддержке экспорта

3) «Малмыжского золото-медно-порфирового месторождения»

- 본 광물 매장지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인 강점으로 러시아 연방정부 및 하바롭스크 주정부 또한 관심을 가지는 프로젝트임
- Russian Copper Company는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토대로현대적, 친환경적, 효율적, 독창적인 기술 및 경험에 따라 말르귀스크 광물 매장지를 개발하고자 함
- Russian Copper Company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투자되는 지역의 노동시장 발전으로 본 프로젝트가 시작될 경우 하바롭스크 나나이 및 아무르 지역 거주자를 포함한 현지 지역 전문가들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함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1062/>,  
<http://rmk-group.ru/ru/smi/press-release/rmk-i-khabarovskiy-kray-podpisali-soglashenie-na-rossiyskom-investitsionnom-forume/> (검색일: 2019년 2월 16일)

**김은미**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

## ■ <프리모리에-2> 인프라 구축, 금 말까지 완공 계획

- 2016년부터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국제운송로 개발 프로젝트인 <프리모리에-1>과 <프리모리에-2>를 추진 중임
  - 러시아는 극동개발전략의 일환으로 프리모리에 프로젝트를 통해 동 지역 내 경제 발전을, 중국은 항구가 없는 동북 지방을 연해주와 연결해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함
  - 중국의 하얼빈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<프리모리에-1>에 비해 중국의 창춘과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<프리모리에-2>의 인프라 시설 건설은 다소 지연되고 있음
  -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올해 2월 '극동: 성장 포인트 - 2019'의 기자회견에서 <프리모리에-2>구간 공사가 중국의 동 프로젝트 적합성 평가 문제와 러시아의 국경 통과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함
- 프리모리에 프로젝트 주요 노선 구축 계획은 아래와 같음
  - <프리모리에-1>의 주요 노선은 '하얼빈(중국) - 무단장(중국) - 쑤이펀허(중국)/포그라니치니(러시아) - 동녕(중국)/폴타프카(러시아) - 우수리스크(러시아) - 블라디보스토크/나호트카항(러시아)'로 구성되어 미국 서부와 유럽행 화물 수송을 맡을 예정임
  - <프리모리에-2>의 주요 노선은 '창춘(중국) - 지린(중국) - 훈춘(중국) - 포시예트/자루비노항(러시아)'으로 구성되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내 화물 수송을 맡을 예정임
  - <프리모리에-1>과 <프리모리에-2>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2030년에 양 노선을 통한 화물수송량은 총 4,500만톤에 달하고, <프리모리에-2>를 통한 화물수송량은 곡물 화물 2,300만톤, 컨테이너 화물 1,5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


### <프리모리예-1>, <프리모리예-2> 노선 구축 계획



자료: 러시아 해양항만무역협회, <http://www.morport.com/rus/news/rabota-po-formirovaniyu-mtk-primore-2-budet-dovedena-do-konca> (검색일: 2019년 2월 11일)

### 2030년 <프리모리예-1>, <프리모리예-2> 예상 화물수송량



자료: 러시아 극동 개발부, <https://minvr.ru/activity/infrastrukturnoe-razvitiye-regionov/> (검색일: 2019년 2월 11일)

■ 참고자료 : 러시아 해양항만무역협회, <http://www.morport.com/rus/news/rabota-po-formirovaniyu-mtk-primore-2-budet-dovedena-do-konca>(검색일: 2019년 02월 12일)

러시아 극동 개발부, [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1022/?sphrase\\_id=816198](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1022/?sphrase_id=816198)(검색일: 2019년 02월 12일)

러시아철도공사, <http://www.rzd-partner.ru/logistics/news/vitse-premer-rf-yuriy-trutnev-rabota-po-razvitiyu-mezhdunarodnykh-transportnykh-koridorov-v-primorsk>(검색일: 2019년 02월 12일)

**김시현**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)

031-330-4852, kakuna1000@naver.com



## 중부권역 주요동향

### ■ 카자흐스탄 국민, 실질소득 4.4% 증가세 보여

- 카자흐스탄 부총리 예르볼라트 도사예프(Yerbolat Dossayev)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(Nursultan Nazarbayev) 대통령의 5대 사회 발전구상(Five Social Initiatives of the President)에 대한 실행내용을 보고했음
  - 부총리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시민사회의 생활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수입의 상승이라고 강조하며, 2018년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4.4% 증가했다고 보고함
  - 특히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발표한 5대 사회 발전구상과 관련하여, 지난 1년 간 경제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함
  - 카자흐스탄은 근래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000년대 초반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,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국가발전전략이나 대통령령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음
- 2018년 3월 5일에 발표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5대 사회발전 구상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
  - 5대 사회발전 구상 첫 번째는 국민들의 주택 구입 기회의 확대로, 선수금 20%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연 7%의 모기지 이율로 25년간 대출이 가능한 '7-20-25' 모기지 프로그램의 이행임
  - 두 번째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으로, 이를 통해 국민 2백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함
  - 세 번째는 고등교육의 환경 개선과 청년 생활 여건 개선으로, 각 교육기관에 대한 교부금을 기존 연간 54,000 건 이외에 추가로 2만 건을 지원하기로 함
  - 네 번째는 자영업자들의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 제공 프로그램으로, 실업자나 농촌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

- 다섯 번째는 가스 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으로, 기존에 혜택을 못 보았던 카자흐스탄 중부지역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신설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가스 이용 혜택을 줄 계획임
- 부총리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5대 사회발전 구상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
  - 작년 7월까지 기준 모기지 프로그램으로 총 43억 텡게(KZT) 규모의 융자가 이루어졌으며, 올해 1월 1일부터 63,000 텡게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세금혜택을 받게 됨
  - 올해 정부는 학생 수용시설 건설을 위해 전국 1백 곳의 토지를 확보했으며, 교육기관과 민간협력을 통해 호스텔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아울러 2018년 한 해 14,000 건의 소액 대출을 통해 22,000 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제공되었고, 카자흐스탄 중부 지역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자금의 확보 완료와 함께 이후 1,900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제공될 전망임

■ 참고자료 : THE OFFICIAL WEB SITE GOVERNMENT OF THE  
REPUBLIC OF KAZAKHSTAN (검색일: 2019년 2월 9일)

**오상호** 연구원(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)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

## 주요 통계

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 (2019년 1~2월 4일)

| 연 방 관 구 | 어 종  | 1kg당 가격<br>(단위: 루블) | 가격 변동률 |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주간     | 1월1일~2월4일 |
| 극동연방관구  | 대구   | 197.0               | -3.0%  | -0.5%     |
|         | 명태   | 96.0                | +1.1%  | -2.0%     |
|         | 창어   | 53.0                | +1.9%  | +6.0%     |
|         | 가자미  | 100.0               | +5.3%  | +11.0%    |
| 북서연방관구  | 해덕대구 | 207.0               | 0%     | -1.4%     |
|         | 대구   | 298.0               | 0%     | +1.0%     |
|         | 고등어  | 126.0               | +0.8%  | +0.8%     |
|         | 창어   | 75.0                | +5.6%  | +7.1%     |
| 중앙연방관구  | 고등어  | 135.0               | +3.1%  | +3.8%     |
|         | 명태   | 117.0               | 0%     | 0%        |
|         | 열방어  | 50.0                | 0%     | 0%        |
|         | 창어   | 78.0                | +6.8%  | +6.8%     |

자료: : <http://mcx.ru/upload/iblock/491/491f8019cb92b6d1452158eff3394540.pdf>( 검색일: 2019년2월17일)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